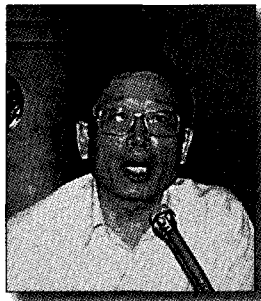


사슴의 주요 질병관리



김 찬 규
 <역촌동물병원장>

<지난호에 이어서>

3. 피부질병(Skin disease)

① 영양대사장애성 탈모증(Hairless)

원 인 : 모근에까지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여 탈모증(털이 빠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특히 단백질, 비타민 A의 결핍과 인, 구리, 철분, 아연, 옥도 등 미네랄의 결핍 등도 원인이 된다.

증 상 : 주로 봄철에 환모시기(털갈이 시기)이전에 털이 듚성듬성 빠져 털이 드러나 보이거나, 털이 부스러져 나가고 칼로 베어 놓은 것과 같이 된다.

치 료 : 고단백질 사료의 공급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투여하고 양질의 청초를 급여토록 한다.

② 개선충 감염에 의한 피부병(Scabies)

원 인 : 개선충이 사슴의 사지, 미근부, 항문주위, 안면부, 둔부 등 밀모부 표피에 기생하여 발생된다.

증 상 : 습진과 같이 피부병 증상을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붉은 반점을 만들고 이어서 수포, 농포를 형성하고 나중에는 비늘과 같은 딱지를 형성한다. 소양증(가려움증)이 있으며 두부, 경부, 미근부 전후지 등에 기생하며 심하면 피부가 융기하고 탈모하고 딱지가 비후해지면 탈락한다.

치 료 : 살충제를 유향제나 저독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외용법으로는 약욕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아미타즈(Amitaz)로 약욕시킨다. 개선충의 번식력을 억제시켜 구충효과를 볼 수 있는 이보맥주사(Ivermectin)를 피하에 주사하

면 도움이 된다.

③ 이에 의한 피부병(슬병, Peticulosis)

원 인 : 이가 사슴의 피모, 체표에 기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피부염이며 주로 건강치 못한 허약한 사슴에서 주로 발병된다.

증 상 : 전신의 모든 부위에 기생하고 비듬이 많으면 딱지를 형성하고 가려움증으로 비벼대면 탈모하고 피부염을 일으킨다. 사슴이 불안해하고 마르며 식욕 감퇴와 영양 저하를 가져온다.

치 료 : 네구본(Neguvon)으로 약욕을 시키고 살충제로는 저독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청결한 환경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④ 피부진균증(Dermatomucosis)

원 인 : 주로 여름철에 발생되며 배수가 잘안되는 질척질척한 사육장내에 사슴이 앉아 있으므로 피부에 곰팡이균이 감염되어 발병된다.

증 상 : 털이 전신적으로 여기저기 빠지며 탈모된 부위는 태양에 노출되어 까맣게 변한다. 피부는 점차 비후해지고 융기되며 심하면 확대되어 인접 병소와 융합되어 전신적으로 피부에 탈모 현상을 보이고 시꺼멓게 변하여 흉한 상태가 된다.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비벼대면 세균이 감염되고 굳은 딱지를 형성하여 습진이 심한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치 료 : 환부에 “데폰지트”와 같은 곰팡이 증식 억제제를 사용하여 약욕처럼 환부에 2회 정도 사용하면 유효하다. 가을철 찬바람이 불고 새로운 털이 자라 나오면 치유된 것처럼 보이나 다음해 봄철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재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육장의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⑤ 파라팍스 감염증(Parapox virus infection)

원 인 : parapox virus의 감염으로 발생되며 주로 보균상태인 어미가 새끼를 분만하였을 때 새끼 사슴에서 발병된다.

증 상 : 어린 새끼의 발병초기 증상은 피부가 발적되고 부어오르며 특히 귀에 나타나 귀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행되어 자세히 피부를 관찰해 보면 융기성 가피가 우둘두들 형성되고 비후해진 딱지는 부스럼 같이 떨어진다. 피모가 까칠해 보이고 성장이 잘 되지 않으며 성장중 폐사하기도 한다. 면역을 형성한 사슴은 보균상태로 살아가지만 숫사슴의 경우 뿔에도 우둘두들한 피부 병 증상을 나타낸다.

치 료 : 초기에 항생제와 코티코스테로이드제제를 주사하여 합병증을 막아준다.

4. 순환기 질병(Cirulatory disease)

① 창상성 심낭염(Traumatic pericarditis)

원 인 : 바늘이나 예리한 철편 등 이물

을 사료와 함께 먹어 이물이 제2위벽을 관통하여 심낭에 자입(꽃침)됨으로서 발병됨.

증상 : 식욕이 감퇴되고 운동을 기피하며 불안해하며 소화불량증세로 착각할 수 있다. 비탈길을 보행시키면 심한 동통으로 앞다리를 떨며 고통스러워하며 신음 소리를 낸다.

치료 : 치료방법이 없다. 자석으로 사료내 이물질(철편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② 심장 쇼크(Heart failure-shock)

원인 : 갑작스런 소음, 진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슴이 철망이나 철주에 흥부를 부딪고 일어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 폐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요즘은 인공수정을 위해 보정용 크릿쉬를 사용하는데 크릿쉬의 성능이 좋지 않아 사슴의 흥부를 압박하여 심장 쇼크를 일으켜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 : 심장 순환기의 장애로 순간적으로 흥부나 앞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주저앉는다.

치료 : 심장쇼크는 폐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심장수종(Edema on pericardium)

원인 : 기온이 상승되는 절각철이나 여름철에 사슴을 몰이하면 흥분하여 뛰

게 되므로 체온이 상승하고 심박동이 증가하여 심장순환기에 장애를 일으키고 심지어 심근에 점상출혈을 일으키고 심낭에 물이 고여 발병된다.

증상 :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하며 동공이 확대되고 보행을 잘 하지 못한다. 갑자기 주저앉아 폐사하기도 하나, 경증인 경우는 무리에서 이탈하여 식욕을 절제하고 활동도 하지 않는다.

치료 : 경증일 경우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이뇨제와 항생제를 주사한다. 수종된 것이 차츰 흡수되고 물이 제거되면 서서히 식욕을 되찾고 회복하기도 한다.

④ 내장기 출혈(Haemorrhage on internal organs)

원인 : 주로 타박에 의한 좌상이나 내장기의 충혈,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이며 피하 출혈로부터 위점막, 장간막, 장점막 비장, 신장 등 광범위한 내장기 출혈이 발생되기도 한다.

증상 : 식욕이 떨어지고 내장기의 기능이 감소하므로 소화장애,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으며 출혈이 빨리 흡수되지 않으면 순화기 장애로 2차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치료 : 비타민-K 등 지혈제와 혈관강화제를 투여하고 항생제, 항염제 등을 주사한다. 때로 고장액의 수액주사가 출혈 흡수에 도움을 준다.

⑤ 빈혈(Anemia)

원 인 : 녹용 채취시 과다한 녹혈을 채취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절각 후 지혈이 되지 않아 과다 출혈로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외부 기생충(진드기, 등애 등)의 흡혈로 영양저하와 빈혈을 초래하기도 한다.

증 상 : 갈증을 나타내며 걸음걸이가 불확실하고 좌우로 머리를 흔들며 걷고 안구점막 등이 창백하고 호흡촉박을 나타낸다.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을 유발하기 쉽게 각 장기의 기능도 약화된다.

치 료 : 아미노산이 포함된 영양 수액의 주사와 소화가 잘되는 고영양사료를 급여한다.

5. 비뇨기 질병(Urinary disease)

① 신장염(Nephritis)

원 인 : 과수원 주위의 농약이 묻은 풀을 베어다 주었을 때 발병되기도 하며 마취제로 사용되는 섉시콜린의 과다 사용에 의해서도 발병된다. 또한 위장염의 합병증이나 신장부위의 타박에 의해서도 발병된다.

증 상 : 급성인 경우 열이 나고 원기와 식욕이 급격히 저하되며 소변의 양이 감소하고 신장의 동통으로 뒷다리를 끄는 듯 걷는다. 때로 혈뇨를 발하는 경우도 있다.

치 료 : 강심이뇨제와 항생제를 투여하

고 영양수액을 주사한다. 농후사료의 양을 줄이고 청초를 많이 급여토록 한다.

② 방광염(Cystitis)

원 인 : 후산정체, 질염증 등으로 화농균, 대장균 등이 방광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또한 노로감염증이 진전되어 발생되기도 한다.

증 상 : 급성일 경우 열이 나고 식욕을 절제하며 배뇨곤란이 오고 만성일 경우는 병세가 가벼우며 배뇨할 때 동통이나 배뇨곤란도 없다.

치 료 : 병원균을 확인하여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나 설파제를 투여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급여한다.



▲ 방광파열로 복강내에 오줌과 파열시 출혈된 혈액

③ 노로 감염증(Urinary-duct infection)

원 인 : 난산시 노로 입구에 손상을 받아 감염되거나 분만후 오염된 물이 고인 곳에 앉아 있으므로 인해 총혈된 질 입구에 있는 노로에 감염을 초래하여 발생된다.

증 상 : 배뇨를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

고 계속 힘을 주어 배뇨하는 자세를 취하며 불안해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때로 열이 상승한다.

치 료 : 소염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노제, 해열제 등을 주사하며 감염된 환부는 베타딘 용액으로 세척하여 소독하여 준다. 만일 뇨로 입구가 열상으로 폐쇄되어 있으면 노카테터를 사용하여 배뇨시켜 주고 외과적 처치를 한다.

④ 뇨 결석증(Urinary calculus)

원 인 : 뇨성분의 일부가 결석을 형성하는 것으로 산우, 방광, 뇨도에서 흔히 발견되어 뇨석이라 칭하며, 사료중에 석회질이나 염류가 많은 경우 뇨석을 촉진하며 오줌 속에 뇨산, 뇨산염, 인산염 등이 이상 다량으로 고농도로 함유되기 때문이다.

증 상 : 동통으로 인해 보행을 잘하지 않으며 불안해하고 식욕저하, 때로 혈뇨를 볼 수 있다. 심한 경우 뇨석이 뇨도를 막아 배뇨를 전혀 할 수 없으며 오줌이 하복부에 저류되기도 한다.

치 료 : 곡물의 급여를 줄이고 음료수는 청결을 유지시켜 주며 조사료의 급여량을 높여준다. “키톤”과 같은 제제를 투여하면 뇨석을 녹여내는데 효과가 있다.

⑤ 포피염(Ammonia-burn on prepuces)

원 인 : 녹용생산을 많이 하기 위하여 숫사슴에게 콩과 같은 단백질 사료와 과잉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며, 대사과정



▲ 극심한 포피염으로 포피부분의 조직이 심하게 과사된 모습

에서 생성된 암모니아 가스가 생식기 포피내 점막에 화상과 같은 손상을 입혀 발생되는데 점막 조직이 헐어버리고 조직에 세균이 감염되어 화농을 유발하기도 한다.

증 상 : 생식기 포피가 발적되고 부어 오르며 배뇨곤란 증세를 나타낸다. 포피내점막이 헐고 염증을 초래하고 육아조직이 자라나와 입구가 좁아지기도 하고 끝이 늘어져 공같이 커지기도 한다.

치 료 : 우선 콩과 같은 단백질 사료의 공급을 줄여야 하고 포피가 부어 있고 화농이 되어 있으면 자극성 없는 소독제로 깨끗이 세정하고 항생제 연고를 헐어 있는 조직안에 충분히 발라준다. 항생제 및 소염제, 이노제 등을 주사하고 만일 육아조직이 자라나와 유착이 되어 배뇨가 곤란하면 외과적으로 절제하여 주고 공같이 자란 육아 조직은 제거 수술을 해준다. **만남양북**

〈다음호에 계속〉